

12/1/19

설교 제목: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4 장 27-31, 66-71 절

- (막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절관주** 눅 13:7, 마 26:31
- (막 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절관주** 막 16:7
- (막 14: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절관주** 마 26:33, 눅 22:33
- (막 14: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 (막 14: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 (막 14:66)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절관주** 막 14:54
- (막 14:67)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 (막 14: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어떤 사본에는, 68 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 (막 14: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 (막 14: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절관주** 사 12:6
- (막 14: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 (막 14: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절관주** 마 26:3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나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고 대제사장은 그 댓가로 가롯 유대에게 은 30 냥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을 찾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겿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쳤고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후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현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심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와중에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에게 잡히신 후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고 다시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쳐다보는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겿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 하셨습니다.

(막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막 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고난 받고 죽을 것이고 제자들은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당신은 부활할 것이며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 재회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눅 22: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눅 22: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베드로에게 탁칠 시험과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넘어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베드로가 실족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실족하더라도 절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킨 후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앞도 모르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막 14: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막 14: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호언장담을 합니다.

(막 14: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겐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들이 닥쳤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자 그것을 신호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지만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당시 실세였습니다.

(요 18: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요 18: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사태가 이렇게 급변하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막 14: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본 책을 쓴 마가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베로 만든 겹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 14: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훌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막 14:52) 베 훌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던 터인지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요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요 18:16)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안 뜰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있던 대제사장 집 종들과 군인들과 섞여 불을 쬐며 예수님의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때인지라 (우리 달력으로 3, 4 월경) 밤이면 쌀쌀했음에도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종들과 군인들은 마당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쬐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자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의 심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적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막 14:66)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막 14:67)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막 14: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어떤 사본에는, 68 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대제사장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면 부인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하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베드로는 당황해 앞 뜰로 나가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 보았고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연이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겿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인 다른 종이 베드로가 예수 도당임을 증거하였고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사투리를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쏟아지자 베드로는 저주를 퍼붓고 맹세까지 하며 사실을 극구 부인합니다. 원래 필요 이상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두번째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쳐다 보십니다.

이 장면을 사 복음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14: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 (막 14: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 (막 14: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 (막 14: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 (요 18: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 (요 18: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 (요 18: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 (마 26: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 (마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 (마 2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 (눅 22: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 (눅 22: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 (눅 22: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자신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예언하신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죄책감으로 어쩔줄 몰라 평소와는 달리 성큼 다가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눈치만 살피며 쭈뼛거리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그 밤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미리 경고까지 했건만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느냐?" "너는 나를 배신했다" 등등의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했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여의도에 살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때라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 교회를 다녔을 때 저희 집 사업체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연거푸 2 번씩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와 제 동생에게 너희들 교회 나가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업체에서 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는 커녕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외람되게도 저는 성경에서 이 귀절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매우 하찮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공생애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여느때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마음 속으로 비웃다가 문득 제 자신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부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바로 베드로였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진짜 바보였구나!

그후로는 본문을 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주시고 동역자로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주님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삽니다.

그렇지라도 주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한심해 하거나 섭섭해 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 곁에서 기도하시며 오히려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자책감을 갖고 절망하고 낙담하여 믿음을 포기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사탄이 자책감을 갖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우리를 찾아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려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소리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 주시고 동역자로 써 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 부르면서 말씀 마칩니다.